

# 세계유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고 승 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 목 차

- I. 들어가면서
- II. 제주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성
- III. 제주의 환경교육 현황과 문제점
- IV.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 V. 나오면서

## I. 들어가면서

오늘날 환경은 자연 그 자체로 생존과 보존을 담보하지 못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인간 문명의 발전과정에서 인간에 의한 끊임없는 간섭·통제 및 착취는 자연생물권 영역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 기술 발달과 자본주의 팽창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

자본주의의 경제체제가 지구적 범위로 확산·지배하는 과정에서 자연생물권 영역을 온전히 보전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오염과 파괴를 일삼아 왔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파괴의 주요 핵심적 행위자들은 주로 선진 유럽 및 북미 국가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 따라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선진국들의 산업화 전략은 인간문명의 발달을 위한 개발주의로 합리화되곤 하였다.

특히 지구생태환경 위기를 전하는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지구

온난화 보고서(2007)에 따르면, 화석연료(특히 석유)의 지속적 사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증시켜 대기오존층을 파괴, 급기야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체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 오고 있다.

유엔은 그 가운데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유산, 생물권보전,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등과 같은 분야를 보전·관리해 나가고, 동시에 인류가 보존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로 계승해 나가야할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인류의 귀중한 세계유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정·등재·인증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발 제한과 체계적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세계유산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처럼 전 세계의 특정 국가나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유엔 차원에서 보호 의지의 발로로 전개되는 세계유산 지정 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환경과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곤 한다. 더구나 21세기에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환경·문화영역의 경제적 잠재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역들을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효과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발전 기회를 잡으려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엔으로부터 세계유산 지정을 받기 위한 국가적 혹은 지역적 차원의 행정·사회적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제주는 일찍이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을 유네스코로부터 지정·등재 혹은 가입 인증받아 이를 보전·관리하고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제주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범도민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잠녀’를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5기 도정은 자연환경의 난개발을 사전에 막고 환경보전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주환경의 비전을 ‘선보전 후개발’로 삼아 환경정책의 실천과제들을 달성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이 성장·개발 패러다임의 지배와 확장으로 생명경시, 자연환경파괴, 자원에너지고갈, 생태계순환의 부조화, 문화유산의 관리·보존 소홀 등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최 근년에 들어서 국가나 지방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 스마트그리드 분야 선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소위 환경보존과 관리에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생태계의 보고로서 알려진 곳자왈, 지하수, 해양 등의 여

러 분야의 환경보호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적극 보전 및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이 세계유산(생물권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에 지정·등재·인증되어, 각종 개발로부터 난개발 방지와 환경가치 보존에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온 민간부문(특히 환경단체)의 각고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보전 후개발’의 환경정책이 누구나 공감할 정도로 그 구체적 효과와 결과를 관찰하기에 이른다. 또한 더구나 가장 최근에 잠재적 혹은 표출적 의제로써 탐동추가매립 문제는 새로운 환경갈등으로 제주지역사회에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다양한 제주환경 자원에 대한 보존과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세계유산의 상품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이 제주의 환경가치와 보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은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제주 세계유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교육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과 실천과제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론적 성찰과 검증에 목적하지 않고 대신에 제주 세계유산의 관리·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춘 정책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력, 정책보고서, 인터넷 검색 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술적(Descriptive) 연구방법에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 II. 제주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성

제주지역은 자연환경에 대한 개발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이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 습지 지역으로 인정받았다. 그만큼 제주의 자연환경이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성을 인정받은 결과이고 동시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환경적 가치와 자산을 지니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어 환경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지질

공원에 한정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전체지역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세계유산으로 통칭하고자 한다.<sup>1)</sup> 그래서 각각의 세계유산 현황과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주의 세계유산 현황

### 가.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UNESCO)는 1971년부터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의 일환으로 생태계의 가치가 큰 곳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오고 있다<sup>2)</sup>. 특정 지역이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인위적 관리를 배제하여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와는 달리 그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촉진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동시에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허용하여 규제와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을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는 항상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의 사업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국내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가 1980년 6월에 설립되어 활동해 오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2012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17개국에 598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2년에 설악산, 1989년 백두산, 2002년 제주도, 2004년 구월산, 2009년 전남 신안 다도해, 그리고 2010년에는 경기도 광릉숲이 지정되었다. 반면에 북한에는 1989년에 백두산 그리고 2004년에 황해남도

- 
- 1)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협약에서 엄격히 정의하는 ‘세계유산’ 의미와는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 혹은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광의의 개념적 의미로 수용하여 이를 모두 세계유산으로 통칭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 2)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전세계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고,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 기술, 그리고 인간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 따라서 생물권 보전지역은 제한적인 이용과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를 도모하여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하는 자연환경 관리 대상지역이라 할 수 있다.

구월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표 1. 참고).<sup>3)</sup>

**<표 1>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남한·북한 통합자료)**

지정연도	생물권보전지역	비고
1982년	설악산	국내 최초
1989년	백두산	북한 최초
2002년	제주도	
2004년	구월산	북한 황해남도
2009년	전남 신안 다도해	
2009년	묘향산	북한 평안북도
2010년	경기 광릉숲	

자료 : <http://mab.unesco.or.kr>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1999년부터 실무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2002. 11. 6~11. 8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MAB국제조정이사회의 의장단 회의에서 제주도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2002년 12월 6일 제주를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구역은 한라산 국립공원을 포함하여 해발 200m 이상 지역, 그리고 서귀포시 영천과 효돈천 및 그 주변 500m 이내 지역, 서귀포시 해양공원과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역으로 전체 면적은 83,094ha로 핵심지역은 15,158ha, 완충지역 14,601ha, 전이지역 53,335ha로 되어 있다.

유네스코의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2003년 7월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정으로 이어졌고, 2005년 3월에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3) 2012년 7월 9~13일 동안 유네스코 본부에서 24차 MAB 국제조정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34개 이사국 대표들과 CBD 사무국 등 관련기구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20곳이 새로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한국이 신청한 DMZ를 포함한 7곳이 유보되었다.

## 나. 세계자연유산(World Natural Heritage)

인류는 과거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고, 현재 삶의 과정에서 직·간접의 자연적·문화적 가치를 향유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어야 할 보편적 의무를 갖게 하는 세계유산들이 세계 여러 국가의 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들을 발굴·보호 및 보존하고자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은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써 1972년 이후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표 2>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현황**

지정연도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비고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국내 최초
1995년	종묘		
1995년	석굴암·불국사		
1997년	창덕궁		
1997년	수원 화성		
2000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년	경주역사유적지구		※ 북한 고구려 고분군 문화유산 등재(2004년)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국내 최초이면서 유일한 자연유산
2009년			
2010년			
총 계	9개소	1개소	

자료: <http://unesco.or.kr/whc>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복합유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세계유산은 전 세계 157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962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문화유산이 745개소, 자연유산 188개소, 복합유산이 29개소로 나타남. 그리고 2012년 8월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은 188개국이며 그리고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은 38개소에 이르고 있다(<http://www.unesco.or.kr/heritage>).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은 9개소이고, 그리고 국내 최초의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총 10개가 등재되어 있다. 이외에 2004년에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 1개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특히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국내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등재되기 전까지 중앙정부(특히 문화재청)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민간기구 등이 6년 이상 동안 각고의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먼저 문화재청이 제주의 자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2001년 1월에 제주자연유산지구 등 7개소를 잠정목록으로 확정된 이후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개최된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의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2008: 8)에 따르면, 제주세계자연유산지구 전체면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면적의 약 10.2%에 달하는 188,462,471m<sup>2</sup>이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유산지구 전체면적의 약 87%로 핵심지역 90,931,226m<sup>2</sup>, 완충지역 73,474,561m<sup>2</sup>를 차지하고 있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유산지구 전체면적의 약 12%로써 핵심지역 3,302,674m<sup>2</sup>, 완충지역 19,064,672m<sup>2</sup>를 차지하고 있다.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유산지구 전체면적의 약 1%로써 핵심지역 518,824m<sup>2</sup>, 완충지역 1,170,514m<sup>2</sup>를 차지하고 있다.

#### 다.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는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교육가치가 높은 지질명소를 보존,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가 입·인증하고 있다. 세계지질공원은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25개국 77개 지역이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으며,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22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일본도

2009년에 3개 지역이 가입 인증되었다(신동일, 2010: 16).

세계지질공원의 출발은 2000년 6월에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EU(유럽연합)의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 2004년 2월에 유네스코(UNESCO) 자연과학 분야활동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국에서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lobal Geopark Network)’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제주도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난 2007년 2월 지질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어 10월에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T/F팀 구성과 운영 및 유네스코 지질공원 기초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6월에는 지질공원 대상지에 대한 예비평가 실시를 거쳐 그 해 11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 후 2010년 7월에 현지실사를 거쳐 10월에 제주도가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에 가입하게 되었다.<sup>4)</sup>

제주도 섬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라산을 비롯한 9곳이 대표적인 지질명소(세계자연유산 3개 지구에 6개 지역을 명소로 추가)로 지정되었다. 예컨대, 한라산, 거름오름용암동굴, 성산일출봉, 만장굴, 수월봉,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지삿개주상절리, 서귀포화석층, 천지연폭포가 세계지질공원의 대표적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자연유산지역은 제주도의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등재되는 것이지만, 세계지질공원의 경우는 제주도 섬 전체가 지정 대상지이다.

## 2. 제주 세계유산의 주요 특성과 차이점

제주도가 세계유산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로 지정 혹은 등재 그리고 가입 인증되었지만 이들 세계유산지역간에 상호 비교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표 3. 참고). 가장 뚜렷한 차별적 특성은 제주의 지정연도가 다르며, 제도적 대상과 제도 실시 유형(지정, 등재, 가입 인증)도 크게 차이를 알 수 있다. 특히 세계지질공원이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과 크게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4)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은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처럼 유네스코로부터 ‘등재’ 받는 것이 아니고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는 형태이다.

<표 3> 제주 세계유산의 주요 특징과 차이점 비교

구분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시작년도	1971	1972	2004
제주 지정 및 인증년도	2002	2007	2010
정책방향	선보전 후개발	선보전 후개발	적극적 관리와 활용
지역설정	핵심, 완충, 전이지역	핵심, 완충지역	별도의 지역구분 없음(제주도 전체)
제도 성격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정식 프로그램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정식 프로그램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지원 프로그램
제도 대상	생물종 중심	지질, 지형, 생물, 물, 대기 등 가장 포괄적	지질 중심에 생태, 역사, 문화 요소 추가
제도 실시	지정(MAB 프로그램)	등재 (세계자연유산 목록)	가입 인증
심사	10년 주기로 보고서 제출 심사	6년마다 재심사	가입 인증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담당 부서	환경정책과(제주) 환경부(중앙 정부)	세계자연유산본부(제주) 문화재청(중앙 정부)	문화정책과(제주) 중앙 정부 없음

자료: 신동일. “유네스코 3관왕의 의미와 향후 과제.” p. 23. 제주발전연구원 「JDI OPINION」 제106호. 2010. 11. 15.

### 3. 제주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 규정

제주의 자연생태환경은 과거에는 농사가 잘 안 되는 척박한 땅이었고, 그리고 버려진 불모지로 인식되어 개발주의적 관점에서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였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제주도민의 생존과 지역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가 70년대 초부터 제주의 자연환경의 원형과 경관(landscape)이 개발이라는 명분에 밀려 보존과 보전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변형과 변화를 겪어 왔다. 예컨대, 관광개발의 지속화, 제주농업의 상업화(특히

감귤 등의 환금작물 재배), 도시화 확산에 따른 녹지지역 축소,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해안도로의 개설, 골프장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제주의 생태자연환경에 대한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재편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서도 압축성장의 개발연대 시기에 자연생태환경은 개발해야 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연환경을 변형시켜 나갈 것이냐가 주요한 과제로 의미부여를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연생태환경의 난개발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훼손에 영향을 미치었다. 이제 자연생태환경은 개발보다는 보존·보전의 실체적 대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도 바로 경제적 수익창출(특히 관광객 방문과 파급 영향)로 연계되기 때문에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외부인(outsiders)들도 제주 자연환경의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더구나 제주의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사회적 구성은 국제적 수준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는 사회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제주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2002. 12. 지정)과 세계자연유산지역(2007. 2. 등재), 그리고 세계지질공원(2010. 10. 가입 인증)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는 이제 도내 및 국내의 한국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객체적 실체로써 섬·땅·자연환경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인과 인류가 관심을 가져 보호·관리 및 계승해 나가야 할 지역으로 ‘세계유산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유네스코가 제주도의 자연유산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동시에 이를 인류의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값진 세계유산으로써의 성격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창출하는 경제·환경적 이미지와 가치 창출(예를 들면, 국내외 인지도 제고, 관광객 증가 효과, 지역의 브랜드화,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교육·훈련 등의 국제적 활동에 동참, 선보전 후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 확산 등)에 직·간접 효과를 내고 있다(신동일, 2010). 세계자연유산지역인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총 188.46km<sup>2</sup>의 면적을 차지하여 세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화려한 탄산염 동굴생성물이 검은 동굴의 벽과 잘 조화되어 세계 어떤 동굴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커다란 요새 모양을 하여 극적인 아름다운 경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라산은 한국에서는 가장 높은 산으로 다양한 식생물 분포, 기암괴석, 폭포와 내천, 호수를 이루는 화구 등으로 예술적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http://whc.unesco.org/en/list/1264>).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가입의 가치와 효과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과는 다르게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더욱 중시하면서 지질교육, 지질관광,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창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제주섬·땅·자연환경에 대한 가치와 의미성 구성 및 재구성은 제주도민에게 제주인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우월성의 생산·재생산으로 연계될 것이다. 사실상 과거 오래 전까지만 하여도 제주는 ‘유배지’ 혹은 ‘변방의 섬’ 지역으로 인식되어 육지 사람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적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그래서 제주인으로서 커다란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기 보다는 ‘섬사람’이라는 수동성과 소극성을 나타내기도 하였을 것이다. 물론 그와 반대로, 제주인들은 육지 혹은 대양을 향한 진취성과 도전정신도 동시에 갖기도 하였을 것이다.

제주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되면서 관광·휴양하기에 좋은 안성맞춤 관광지역이라는 기존의 지역이미지와 더불어 소위 ‘세계인이 찾고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그 의미성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인식이 외부인(outsiders)에게 달리 각인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단순히 공기와 물이 깨끗하고, 관광하기에 볼거리가 많은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세계유산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의 자연생태환경은 이제 잘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그 의미성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제주가 뉴세븐원더스 재단에 의한 세계7대자연경관 지역으로 선정되어 제주자연경관의 세계적 이미지 재생산에 더욱 가세하는 형국이다.<sup>5)</sup> 그렇지만 제주도에 대한 유네스코의 의미규정(meaning definition)과 의미창출(meaning creation)은 뉴세븐원더스 재단보다는 사회적 신뢰와 공감을 얻게 될 것이다.

---

5)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와 의미가 다소 위축되어진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이후의 변화가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 Ⅲ. 제주의 환경교육 현황과 문제점

제주는 생태자연환경의 세계적 수준에서 의미와 가치의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연환경 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와 공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제주는 「환경교육시범도」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환경도시로 조성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 세계유산의 가치성과 의미성을 지속적으로 생산·재생산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세계적 수준에서 제주의 세계유산에 대해 인정받는 객관적 인식과 평가를 개인의 주관적 객체화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이 요구된다. 우선 제주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식과 세계관 그리고 환경교육 수준에 대한 사회적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주의 환경교육 현황과 문제점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1. 제주의 환경교육 현황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도 자연보호 혹은 환경보호 관련 사회적 캠페인이나 학교에서 환경교육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제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혹은 지정, 인증)된 이후 환경교육에 대한 사회·교육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들이 범도민 차원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사실상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생태자연환경을 가짐으로써 도민의 자부심 고양, 제주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환경산업(신재생에너지)의 태동 계기 등과 같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 스스로 제주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 지속의 당위성 그리고 보존·보전 및 관리의 필요성 등을 보다 잘 이해시키고 이를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제주지역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은 추진기관,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유형 등에 따라 환경교육의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표 4. 참고)

<표 4> 제주 세계유산의 주요 특징과 차이점 비교

구분	주요내용		비고
추진기관에 따른 분류 (26개 기관 및 단체)	교육청(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생태문화체험골, 꽃자왈작은학교 등 자발적 환경교육기관들이 미포함되어 있음.
	공공기관 (7+행정시, 읍·면·동)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청(인재개발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수자원본부, 스마트그리드과, 민속자연사박물관) 행정시 및 읍·면·동 사무소 등	
	사회단체 (19)	(사)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도의제 21협의회, 제주시의제21협의회,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한라생태체험학교, (사)꽃자왈사람들, 제주홍사단, 제주여민회, 서귀포YWCA, 제주남원청년회의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보전협회, 제주환경연구센터, 탐라환경산림보전협회, 제주도바다환경보전협회, 제주생태교육연구소	
교육대상에 따른 분류*	공무원	전문적인 기술교육, 저탄소 녹색성장 등 소양교육(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직장인	의무교육 대상자(위탁교육 포함) 등에 대한 교육(제주환경보전협회,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일반인	전문과정	제주대 산업대학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 (사)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인재개발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일반과정		교육청 외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어린이·학생	학생전담교육 :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 생태체험학교, 제주홍사단 등이고, 인재개발원, 제주대 산업대학원,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환경보전협회, 제주환경연구센터 등을 제외한 교육기관에서 일반인과 병행 교육 실시	
교육기간에 따른 분류	중장기과정	인재개발원, 제주대산업대학원,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사)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단기과정	중장기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당일 혹은 2, 3일 이내의 단기교육 프로그램 제공	
	자연환경	생태기행 및 체험학습, 한라산 오름 형성과정, 자연생태교실, 꽃자왈의 이해, 제주도의 생태 이해, 올레길	
	인문환경	제주섬의 환경과 문화 등	
	환경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의 이해 등	
	중장기과정	인재개발원, 제주대산업대학원,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사)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단기과정	중장기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당일 혹은 2, 3일 이내의 단기교육 프로그램 제공	
	자연환경	생태기행 및 체험학습, 한라산 오름 형성과정, 자연생태교실, 꽃자왈의 이해, 제주도의 생태 이해, 올레길	
	인문환경	제주섬의 환경과 문화 등	
	환경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의 이해 등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수립」 pp. 146~147. 2011. 12. 재정리.

\* 관광객 혹은 수학여행단 학생들 대상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없고, 다만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그린캠퍼스 교육프로그램으로 제주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 적은 있음.

\*\*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2010년까지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2011년부터 (사)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서 수행함.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부터 도내 학교교육에서 ‘환경교육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에는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하였다. 그래서 2008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이런 법적·제도적 근거 하에 “제주지역환경교육센터” 시설 기반의 구축과 “환경교육종합계획(2011~2015)” 수립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제주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주지역 내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 기리고 기타 도비(보조금) 지원 등에 의해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제주환경연구센터 등에서 전문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NGO 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예, 체험환경, 자연해설사 양성, 오름기행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각급 학교(초·중·고)에서도 환경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예, 환경체험, 환경페스티벌, 에너지 절약, 해양환경, 환경교과 연구회 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 2. 제주지역 환경교육의 문제점

제주가 우수한 생태자연환경 조건을 가지고 세계유산의 지위와 환경교육시범도로서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와 환경교육 콘텐츠를 갖고 있는지 한번 짚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제주지역에서 환경교육은 제주 세계유산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제로

환경보전의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리고 제주의 자연생태환경이 처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주환경 지킴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및 양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태운(2011: 11~14)과 제주특별자치도(2011: 152~157)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제주지역 환경교육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가 환경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들은 구비되었으나 전문 교재 발간 미흡, 전담 전문인력의 부족,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미진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둘째, 환경교육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개선을 위해서 환경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환경교육 관련 예산지원 규모가 열악하고, 또한 분산집행으로 제주 환경교육의 품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내세울 만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셋째, 제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못하여 중복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환경전문가의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기업체 대상 환경교육 시스템 부재, 교육기관간 네트워크 미흡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넷째, NGO 단체들이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또한 NGO 환경교육 단체들이 교육프로그램의 중복성과 유사성이 있는데 보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도청, 행정시, 읍·면·동사무소)이 환경교육의 양적 성장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도정의 환경정책 비전(선 보전 후 개발)과 제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에 걸맞는 질적 환경교육을 위한 장기적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환경교육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교육 전담인력 및 재원확충, 교육시설 및 장비, 제주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 행정기관의 적극적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환경교육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IV.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제주가 세계유산(예,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가입 등)을 잘 보전해 나가면서 최소한의 인위적 관리와 경제적 수익창출을 위해서도 도민의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 나가는데 필요한 환경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제주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하려면 유네스코가 지정·등재·인증을 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환경교육 시스템의 재편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2011: 161~167)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수립」에서 제시된 환경교육 비전은 “세계 최고의 환경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천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와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세계환경대학」은 아직까지 설립과 운영에 대한 뚜렷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환경교육기관들이 새로 생겨 일반인, 대학생과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지만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한 새로운 환경교육의 흐름과 선진 환경교육프로그램의 도입, 환경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양성 등을 고려하는 환경교육 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제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그리고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접근구도

제주가 21세기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고 여기에 미래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교육 시스템 개선이 실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개선과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객관적 현황분석과 문제점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교육의 선진화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환경교육진흥 조례)하에 제주특성을 고려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에 걸맞는 환경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에 연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의 환경교육 시스템은 핵심적 실천과제들을 담아야 할 것이다.

## 2.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 ① 환경교육 시설의 선진화

제주에 우수한 생태자연환경 조건을 가지고 세계유산의 지위와 환경교육시범도로써 위상에 걸맞는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다. 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의 접근성(첨단 통신장비 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e-learning 시스템 구축(인터넷, 화상교육, SNS 등)도 필요하다.

### ② 환경교육의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

제주에 유네스코로부터 인정받은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의 환경교육은 세계적 수준에 걸맞도록 법·제도의 개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환경관리 및 보전 관련 인력양성, 선진 환경교육문화 교류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교육의 선진국과 제주가 상호 교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지원체제 구축

환경교육은 특정한 계층, 지역 그리고 집단 등에 소속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다양한 부류의 교육대상자의 수요에 맞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애주기별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지원체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④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제주지역에도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들이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도청,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 NGO 단체 그리고 각

급 학교들이 환경교육에 동참하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환경교육 관련 단체(기관)들 간에 긴밀한 네트워킹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나가야 할 것이다.

#### ⑤ 환경교육 시스템의 통합적 관리·운영

지금까지 제주에서 환경교육은 각각 환경교육기관(단체)에 의해서 독자적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향을 띄고, 특히 행정기관의 보조금 사업에 의해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여러 교육기관(단체)간의 중복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환경교육 전반에 대한 (기획, 집행, 평가 등) 통합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될 때 환경교육의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관리 시스템 하에서 환경교육 기관(단체)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⑥ 환경교육이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연계성 강화

환경교육은 자연환경 관련 내용 그 자체만을 교육 콘텐츠로 삼아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생태자연환경은 산업구조의 변화, 제주도민의 경제생활과 소비생활, 의식변화, 제주문화와 역사 등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제주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과의 연계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선순환 경제 시스템의 작동은 생태자연환경의 보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도민의 소비생활 행태가 자원 낭비와 절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교육 과정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⑦ 환경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도민의 자발적 환경지킴이 양성

도민들로 하여금 환경교육에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 내어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타의적이기 보다 자발적으로 제주 세계유산 환경지킴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질적 개선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들을 감안할 때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의 비전을 “세계적 수준의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계환경도시 조성”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3.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의 기본원칙

#### ① 준비성의 원칙

세계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예, 인력, 재정, 시설, 교육프로그램, 주민참여 등)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 ② 차별성의 원칙

제주에서 실행되는 환경교육은 그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환경교육의 성공적 모델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주의 독특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③ 다양성의 원칙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교육은 교육기관(단체)들 사이에 교육프로그램 내용, 시간, 강사 등의 중복성 및 표준성으로 인해서 환경교육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욕구 충족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④ 지속성의 원칙

환경교육이 교육대상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면 제주 세계유산과 다른 생태자연환경(식생, 습지, 동식물, 오름 등)은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개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지원의 지속성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⑤ 실용성의 원칙

제주 세계유산은 원형 그대로 보존할 가치를 지닌 자원은 절대로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교육, 관광 및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기여하는 세계유산 자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세계유산의 보전과 활용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 그런 세계유산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⑥ 통합·상생의 원칙

공공 환경교육 부문과 민간 환경교육 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 환경교육 부문간의 상생의 개방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교교육 부문과의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환경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시켜나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자연환경으로부터 편의와 이익을 보고, 동시에 환경은 지속가능한 보전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의 실천과제

제주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계유산(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및 활용하는데 중요한 환경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정책적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① 환경교육 분야와 기후변화교육 분야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와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평가를 거친 후 통합운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② 세계적 수준의 우수 생태자연환경 자원을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주 세계유산자원에 대한 정기적 조사·연구개발 사업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정기적 R&D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전문성을 가진 환경교육자 양성과 제주특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④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교육기관(단체)들의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과학

적·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⑤ 행정기관(도청, 행정시)의 제주 세계유산 관리 및 보전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앞서가는 환경 선진국에 파견하여 선진 환경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연수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⑥ 환경교육시범도의 위상에 맞게 공공 및 민간부문의 환경교육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 재정지원 확충을 위해서는 조례상에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⑦ 기존의 환경교육 전문가들이 새로운 환경기술, 환경지식,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훈련비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⑧ 환경해설사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강화하고 환경해설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환경해설사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⑨ 제주의 환경교육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기적 연구모임 혹은 연구포럼’ 형태의 연구공동체를 창립하여 제주 세계유산 관련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교류, 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리 및 보전문제 등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⑩ 행정기관(도청,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일방적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정기관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혹은 행정시가 중심이 되어 환경교육기관(단체) 간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도청, 행정시)은 (가칭) 「환경교육거버넌스포럼」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⑫ 환경교육의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를 표방할 수 있도록 「세계환경대학」의 조기 설립에 다각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 V. 나오면서

제주는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 등재 혹은 인증하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2002. 12. 16. 지정), 세계자연유산(2007. 6. 27. 등재), 세계지질공원(2010. 10. 가입 인증)은 제주와 한국의 환경가치와 자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제주의 세계유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처럼 제주의 생태자연환경에 대한 가치부여와 의미 해석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social construction)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재구성되어질 것이다.

제주 세계유산은 그 성격과 특성에 따라 온전히 보존해야 할 대상이 있고, 혹은 보전·관리하여 최소한의 인위적 변화를 통해서 교육, 관광 혹은 지역주민의 수익창출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을 허용하는 대상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세계유산의 관리·활용을 위한 종합지침서를 보다 치밀하게 짜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세계유산을 잘 관리·활용하여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달성하려면 환경교육 시스템의 재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환경교육 시스템은 여러 측면(예컨대, 교육인프라, 재정,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향후 제주에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환경교육 시설의 선진화, 환경교육의 세방화(glocalization),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지원체제 구축,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 환경교육 시스템의 통합적 관리·운영 등에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은 준비성의 원칙, 차별성의 원칙, 다양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실용성의 원칙, 통합·상생의 원칙에 두고 있다.

제주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적 실천과제들이 있는데, 우선 열악한

환경교육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교육기관(단체)의 환경전문 인력 충원, 직무역량 강화, 재정 지원 확충, 통합·관리 운영, 그리고 거버넌스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R&D 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 세계유산의 지위와 위상을 유지해 나가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도시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환경해설사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환경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도 바람직하다. 끝으로 환경교육의 세방화(glocalization)를 실천하는 주요 과제로서 「세계환경대학원」의 조기 설립에 다각적 지원 노력도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고승한·이기성(2010). 「제주형 평생교육 모형 개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김태윤(2011). “제주지역 환경교육의 선진화 방안.” 「JDI FOCUS」 제118호. 제주발전연구원.
- 신동일(2010). “유네스코 3관광의 의미와 향후 과제.” 「JDI FOCUS」 제106호.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11).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 제주특별자치도(201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수립」
- <http://mab.unesco.or.kr>
- <http://terms.naver.com/entry.nhn>
- <http://unesco.or.kr/whc>
- <http://whc.unesco.org/en/list/1264>
- <http://www.unesco.or.kr/heritage>